

해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형태론 연구

- 조사와 어미의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

姜寶有

復旦大學

byjiang@fudan.edu.cn

1. 서론

한국어 형태론은 전통문법, 구조문법, 생성문법 그리고 인지문법을 거치면서 음운론, 어휘론, 통사론, 의미론과의 상관성 연구로 범위를 넓혀 갔으며 학제 간 연구로 형태음소론, 형태통사론, 생성형태론, 인지형태론, 전산형태론 등 다양한 연구 분야가 개척되기도 하였다.

형태론은 단어의 형태적 특성을 다루는 문법의 하위 부분으로서 단어의 활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어에서 단어의 활용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조사와 어미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연구는 형태론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면서 통사론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어 형태론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쟁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한국어교육 시각에서 형태론 연구의 중심 과제로 되는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분포와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의 변화 양상을 중점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와 어미의 분포와 속성

문법 형태의 기능이란 분포와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와 어미에 대한 기술은 분포와 기능의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와 어미의 품사 속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다. 한국어 표준 문법에서는 분포의 시각에서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에는 단어의 자격을 주고 어미에는 접사의 자격을 주고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로서는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한국어 형태론 체계는 애초부터 조사나 어미를 단어로 보느냐에 따라 첫째,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보는 분석적인 입장, 둘째, 조사는 단어로 보고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는 입장, 셋째, 조사와 어미를 모두 독립된 단어로 보지 않는 입장 이 세 가지로 대립되고 있다.

한국의 표준 문법이나 학교문법에서는 두 번째 입장인 조사는 단어로 보고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는 입장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표준 한국어 형태론 체계는 모어 화자에게는 적합할지 몰라도 외국인 학습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

다.

조사는 독립성이 강한 체언에 붙었다고 하여 독립적이고 어미는 독립성이 약한 용언에 붙었다고 하여 비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체언과 용언의 자립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지 조사와 어미 자체의 자립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와 어미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절대 없다.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으로 말미암아 그 자립성이 돋보일 뿐이고 어미는 앞에 오는 용언으로 말미암아 그 자립성이 인식되지 않을 뿐이다.

분포의 시각에서 조사는 체언에 분포되고 어미는 용언에 분포되었다고 하여 하나는 단어의 자격을 주고 다른 하나는 접사의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기능의 시각에서 볼 때, 조사와 어미는 모두 문법적 관계 기능을 한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조사와 어미는 형태상으로는 단어에 결합하지만 의미·기능상으로는 단어 이상의 단위에 결합됨으로써 접사보다 (의존적) 단어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최형용(2016:108-109)에서는 ‘어미’에 문장 형성의 요소로서 문법적 단어의 자격을 주고 <학교문법통일안(1963)>의 9 품사 체계에 ‘어미’까지를 포함하여 10 품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포와 기능을 함께 살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을 버리고 조사와 어미를 통합하여 실사(實辭)에 상대되는 허사(虛辭)라는 단어 범주를 설정한다면 단어의 형태소 분석과 맥을 같이할 수 있다. 실질 형태소인 어휘 형태소에 상대하여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 어미를 통합하여 문법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 과정이나 습득 과정으로 보아도 조사와 어미는 어디까지나 문법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휘적 단어(실사)에 상대하여 조사와 어미는 문법적 단어(허사)로 인지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조선이나 중국에서 조사와 어미를 통틀어 ‘토’라고 하고 조사는 ‘체언토’, 어미는 ‘용언토’라고 갈라 부르듯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문법에서는 어휘적 단위에 상대하여 문법적 단위로서의 조사와 어미를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조사와 어미의 기능

문법적 형태·의미기능 표지로서의 조사와 어미를 논의하려면 먼저 조사와 어미의 원초적 기능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휘화 기능이 조사의 원초적 기능이고 문장화 기능이 어미의 원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수(1971/1986:64-66)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을 서술 내용과 서술 양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조사의 문법적 기능은 서술 내용과 관련되고, 어미의 문법적 기능은 서술 양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서술 내용으로부터 조사의 어휘화 기능이 도출되고 서술 양상으로부터 어미의 문장화 기능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3.1. 조사의 기능

한국어 조사는 애초부터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1차적 기능으로서 어휘화 기능 즉 단어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2차적 기능으로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문법적 관계 기능과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화용 의미 기능이다.

먼저, 조사의 어휘화 기능을 보도록 한다.

한국어 조사는 문법적 관계의 기능에 앞서 어휘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어 조사는 단어는 물론 구, 절, 문장 심지어 음운적 단위 등 여러 층위에 걸쳐 사용됨으로써 이들을 단어의 기능을 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바로 조사의 1차적 기능이다. 지금까지 한국어는 인구어와는 달리, 조사가 왜 구나 절 그리고 문장에도 붙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없다. 한국어 조사는 역으로 구나 절 그리고 문장 등을 어휘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혀 주는 것이 조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 것이지만 조사의 이런 어휘화 기능은 거의 제기조차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사의 기능을 논의하면서 고영근(1993:22-26)이나 이익섭·채완(1999:58)에서처럼 조사는 한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문장을 지배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시각을 바꾸어 조사의 기능을 아예 어휘화 기능으로 확정한다면 결국 모든 선행어(혹은 피접어)들을 단어화한다는 조사의 기능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문법 기술에서 소위 ‘문장’까지를 지배한다는 논리적 모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사의 어휘화 기능은 또 문장(단위)에 붙어서 그를 단어와 대등한 통사 단위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체 문장에 대한 어미의 문법 지배와도 구별됨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다음, 조사의 문법적 관계 기능과 화용 기능을 보도록 한다.

한국어 조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조사의 2차적 기능인 문법적 관계 기능과 화용 의미 기능에 집중되었다. 특히 격조사의 기능이 문법적 기능이나 아니면 의미적 기능이나를 놓고 아직도 이론(異論)이 분분하다.

한국어 조사는 통사 기능과 의미 기능으로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를 격조사라 하고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를 보조사라 한다(고영근·구본관 2008:149).

결과적으로 한국어문법 연구에서 격조사는 통사 기능으로 분류하고 보조사는 의미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자체의 객관성과 그에 대한 화자의 주관성 개입이 언어 표현으로 고착된 점을 우리 선인들이 화자의 시점에서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화자의 시점에서 볼 때, 객관성과 주관성이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 선별 기준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어 조사 표현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격조사와 보조사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격조사는 객관적으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관계 기능으로, 보조사는 화자의 주관성이 투사되면서 어떤 뜻을 더해 주는 화용 기능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객관성과 주관성이 격조사와 보조사의 선별 기준으로 성립된다면, 문법 형태 기술에서는 조사를 통사 기능을 하는 ‘객관 조사’와 화용 기능을 하는 ‘주관 조사’로 갈라볼 수 있고, 통사 기술에서는 주어에 주격조사 ‘이/가’가 쓰이면 객관적 서술형이고, 주어에 보조사 ‘은/는’이 쓰이면 주관적 서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격조사의 주관화로 인한 화용 의미는 문법적 관계 기능에서 파생된 화용 의미 기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격조사의 주관화가 인정된다면 격조사가 통사적 격 표시 기능뿐만 아니라 화용 의미 기능도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 기능 조사인가 한정 조사인가 양태 조사인가 하는 격조사의 이중, 삼중 성격을 밝히는 데서도 다양한 해석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한국어는 객관성과 주관성 표현 형식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언어지만 그간 한국어 연구에서는 서법과 양태라는 개념으로 문장의 종결형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화자의 판단이 투사되는 주관성은 서법과 양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도 예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보유(2011:78)와 강보유(2012:58-66)에서는 주격조사 ‘이/가’는 객관성 표지로 쓰이고 보조사 ‘은/는’은 주관성 표지로 쓰이며 주격조사 ‘이/가’는 통사 위치 전환으로 주관화 표지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긴절의 주어에 보조사 ‘은/는’이 쓰일 수 없는 원인을 그의 주관성 표지 기능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격조사 중 문법적 의미가 강한 구조격 조사(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들끼리는 겹쳐 쓰일 수 없다(유현경 외 9인 2018:309)는 점과 구조격 조사, 의미격 조사, 보조사들이 겹쳐 쓰일 때에 구조격 조사가 가장 뒤에 온다(고영근·구본관 2008:166)는 점에서도 구조격 조사의 문법적 관계의 객관성이 더 돋보인다고 하겠다.

아래에 격조사의 객관성과 보조사의 주관성에 대해 보기로 한다.

상호 교체가 가능한 문장에서 격조사의 객관성과 보조사의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

(1) ㄱ. 철수가 이곳을, 영수가 저곳을 지켜라.(박영순 1999:220)

 ㄴ. 철수는 이곳을, 영수는 저곳을 지켜라.(박영순 1999:220)

(1)에서 격조사 ‘가’와 보조사 ‘는’은 똑같이 ‘지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가’에 비해 ‘는’이 보다 더 ‘한정’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1 ㄱ)은

일반적인 보통의 내용으로 객관성이 돋보인다면 (1 ㄴ)은 한정적인 강조의 내용으로 화자의 주관성이 더 돋보인다. 그래서 아래 (2)와 같이 양태성 부사(어)와의 공기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2) ㄱ. *철수가 이곳을, 영수가 저곳을 빈틈없이 (확실하게) 지켜라.

(박영순 1999:221)

ㄴ. 철수는 이곳을, 영수는 저곳을 빈틈없이 (확실하게) 지켜라.

(박영순 1999:221)

화자의 주관성이 투사되는 양태성 부사(어) ‘빈틈없이’, ‘확실하게’는 객관성이 돋보이는 (2 ㄱ)에서는 어색하지만 주관성이 돋보이는 (2 ㄴ)에서는 자연스럽다. 이는 바로 격조사 ‘가’보다 보조사 ‘는’이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공기 관계 성립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보조사 ‘은/는’은 주관성이라는 의미 기능 때문에 아래와 같은 통사적 제약이 따른다.

첫째, 한국어에서 안긴절의 주어 자리에는 주격조사 ‘이/가’가 쓰이고 보조사 ‘-은/는’은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3) ㄱ.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유현경 외 9인 2018:468)

ㄴ. *농부들이 비는 오기를 기다린다. (유현경 외 9인 2018:468)

유현경 외 9인(2018:468)에서는 (3)을 듣고 안은문장 구성에서 안긴절의 주어에는 주제(topic)를 표시하는 조사 ‘는’이 연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할 뿐이다. 이는 바로 화자의 주관성은 안은문장에 투사되고 안긴절에서는 화자의 주관성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사·의미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의 주어에 보조사 ‘은/는’이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4) ㄱ.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고영근·구분관 2008:490)

ㄴ. *봄은 오면 꽃이 핀다. (고영근·구분관 2008:490)

(5) ㄱ. 인간은 아무리 지능이 낮더라도 언어를 사용한다. (최윤갑 2009:198)

ㄴ. *인간은 아무리 지능은 낮더라도 언어를 사용한다.

(최윤갑 2009:198)

(4), (5)에서 선행절이 통사·의미적으로 후행절에 종속됨으로써 선행절이 안긴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조건, 가정, 양보의 종속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이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조건, 가정, 양보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부터 안긴절이나 종속절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제시하는 통사·의미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어미의 기능

한국어 어미도 애초부터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1차적 기능으로서 담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문장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2차적 기능으로서의 문법적 관계 기능을 말하는데 높임, 시제, 양태, 문장의 유형, 문장의 확대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어미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형태상으로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지만 의미 기능상으로는 단어 이상의 단위에 결합한다(고영근·구본관 2008:167).

어미는 형태상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용언에게 자립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앞에 놓이는 단어 이상의 단위를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묶어주는 문장화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어미는 형태론적으로 앞에 놓이는 용언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론적으로 앞의 전반을 지배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국어 어미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화·청자 간의 인칭과 친밀성, 사건 발생의 시제 등과 선택적인 제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미는 앞에 오는 용언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문장을 지배한다는 어미의 문장화 기능이 확인된다. 이는 한국어 문장은 조사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지만 어미가 없으면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원리와도 직접 연관된다. 이는 또 한국어 문장 분석에서 어미가 가장 중요한 핵이 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목정수 2009:155).

한국어 어미는 이상과 같이 통사론적인 문장화 기능을 함과 동시에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법적 관계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관계언(關係言)으로 묶을 수 있다(최형용 2016:194).

분포와 기능의 시각에서 한국어 조사와 어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조사는 체언 단위에 붙어서 그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주는 어휘화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문법적 관계 기능과 화용 기능을 하는 문법적 단위를 말하고, 어미는 용언 단위에 붙어서 그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주는 문장화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법적 관계 기능을 하는 문법적 단위를 말한다.

4. 조사와 어미의 주관화와 문법화

조사와 어미의 기능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주관성 투사로 하여 주관화되고 문법화되고 있다.

4.1. 조사의 주관화

주관화(subjectification)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에 따른 화용 의미로의 변화를 말한다. 언어표현의 객관성과 주관성은 공시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지만 화자의 주관적 심리 태도 변화에 따라 주관성이 강조되면서 표현의 주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격조사의 주관화 양상에 대해 보도록 한다.

격조사의 기본 기능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격조사는 통사적 격 표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성이 투사되면서 양태 의미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를 ‘격조사의 주관화’라고 한다(강보유 2014:107-108). 격조사의 주관화는 조사의 기본 의미가 정감적, 양태적, 화용적 의미로의 변화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다.

격조사는 통사적 분포의 위치 전환을 통해 주관화가 실현된다.

주격조사 ‘이/가’는 문법적으로 주어의 자리가 아닌, 목적어의 자리에 놓일 때 강조 기능이 짙어지면서 주관화가 실현된다.

(6) ㄱ. 백두산 천지를 제일 보고 싶다.

ㄴ. 백두산 천지가 제일 보고 싶다.

(7) ㄱ. 늘 침대를 갖고 싶었다.

ㄴ. 늘 침대가 갖고 싶었다.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2016:75)

(6 ㄴ), (7 ㄴ)에서 주격조사 ‘가’는 통사적 파격으로 주관화가 실현된 것이다. 동사 ‘보다’, ‘갖다’와 같은 두 자리 동사는 통상적 통사구조에서는 ‘이/가’를 문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고 싶다’와의 합성을 통해 형용사화 되었다고 할 것인가?

(6 ㄱ), (7 ㄱ)과 같이 ‘동사 어간+-고 싶다’ 구조가 목적격조사 ‘을/를’을 문법적으로 완전 지배할 수 있음에도 (6 ㄴ), (7 ㄴ)과 같이 ‘이/가’를 지배함으로써 객관화와 주관화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두산 천지’, ‘침대’가 의미적으로 주어로 전환된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목적어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 주격조사 ‘이/가’가 강조 의미 기능을 하기 위해 위치 이동(전환)으로 주관화된 것이다. 명사가 위치 이동한 것이 아니라 조사가 위치 이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객관성 기능 표지로서의 격조사 ‘이/가’가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주관화 표지로서의 보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강보유 2014:108). 이렇게 화자의 주관성 투사로 인한 격조사의 주관

화는 일반적으로 통사구조의 변형을 초래한다.

아래 (8-11)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와 겹쳐 쓰이면서 주관화가 실현되고 있다.

- (8) 나무에가 꽃이 피었다. (고석주 2004:59)
- (9) 부산에서가 가장 힘들었다. (고석주 2004:60)
- (10) 시골에서가 기분이 좋다. (임흥빈 2007:469)
- (11) 일이 벌어진 것은 학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입니다.

아래 (12-13)에서는 목적격조사 ‘를’이 이동 행위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 ‘에게’와 겹쳐 쓰이면서 주관화가 실현되고 있다.

- (12) 그가 요즈음 모임에를 자주 나온다. (고석주 2004:239)
- (13) 만이가 누이에게를 갔다. (고석주 2004:239)

목적격조사 ‘를’은 이동 행위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 ‘에게’와 겹쳐 쓰임으로써 이동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주관화되었다. 위와 같은 주관화 실현을 위한 격조사의 중첩은 ‘에서의’, ‘에서부터’, ‘에서까지’, ‘에게로’와 같은 일반적인 조사의 중첩 사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아래 (14-16)에서는 주격조사 ‘가’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 (14) 동대문 시장은 밤 늦게가 손님이 많다. (고석주 2004:56)
- (15) 영이가 원래가 예뻐다. (고석주 2004:98)
- (16) 도대체가 틀려 먹었어. (《우리말 큰사전》)

아래 (17)에서는 주격조사 ‘이/가’는 주관화되면서 보조사 ‘은/는’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강조 기능을 나타내는데, 객관성에 대한 강조인가 주관성에 대한 강조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 (17) ㄱ.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17 ㄱ)은 그렇게 하고는 싶어도 어떤 객관적 원인으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면, (17 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주관적 판단으로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국어 격조사는 분포 확장인 위치 이동으로 주관화가 실현되면서 아래와 같이 부정 구문에 많이 쓰임을 볼 수 있다.

(18) ㄱ. 철수가 착하지가 않다. (고석주 2004:55)

ㄴ. 철수가 착하지를 않다.

(19) ㄱ. 난 밥을 먹고 싶지가 않다.

ㄴ. 난 밥을 먹고 싶지를 않다.

고석주(2004:56)에서는 ‘가’나 ‘를’을 ‘는’, ‘도’와 같은 범주의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했지만 그것이 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때의 ‘가’나 ‘를’은 분포 확장에 의한 위치 이동으로 주관화되면서 보조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술이 될 것이다. 격조사 ‘가’와 ‘를’이 격 표지로부터 보조사로 기능이 분화된 것이라기보다 분포 확장에 따른 위치 이동으로 통사 기능이 아닌 강조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격조사는 주관화 기제를 통해 격이라는 문법적인 원형의미로부터 주관적인 양태 의미를 얻음으로써 보조사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그저 격조사의 강조 기능이라고 단순 해석하기보다는 격조사의 주관화로 하여 강조 기능을 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 방법이 문법 설명으로는 더 합리적일 것이다(강보유 2017:61).

다음, 보조사의 주관화 양상에 대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우리는 보조사 ‘은/는’은 주관성이라는 의미 기능 때문에 안긴절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없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보조사 ‘은/는’은 화자의 주관성 투사로 하여 안긴절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없다는 통사적 제약을 파격하면서 더 주관화되어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 ㄱ. 나는 [철수는 공을 차는 것을] 보았다.

ㄴ. 우리는 [철수는 공을 차기를] 바란다.

ㄷ. 철수가 [영희는 성적이 좋음을] 알았다/몰랐다.

(20)은 임흥빈(2007:327-329)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적격한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문들이다. (20)이 부적격한 문장인지는 제쳐두고라도 어색한 문장으로 느끼지만 말뭉치에서 많이 발견되고 또 언중이 거부감 없이 적격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는 바로 보조사 ‘은/는’의 주관화이고 또 그 주관화로 인한 주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부터 주관성 표지로 쓰이던 보조사 ‘은/는’이 통사구조 선택 제약을 깨뜨리면서까지 안긴절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인다. 화자의 강한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화로 하여 한국어 통사구조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어미의 문법화

한국어 어미의 문법화 양상으로 선어말어미 ‘-시-’의 ‘상대 높임’에 대해 보기로 한다.

주체 높임법 ‘-시-’의 특수 용법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간접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국립국어원(2005:217)에서는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이거나 그의 소유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로 쓰일 때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의 어간에 ‘-(으)시-’를 붙여 표현하는 높임의 방법을 ‘간접 높임’이라고 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459-461)에서는 ‘-(으)시-’가 존경의 주어 명사구에 소속된 사물을 높일 때에 실현되는 경우를 ‘간접존경’(흔히 간접높임)이라고 하면서도 “XX님, 약 처방 나가십(-시+-ㅂ)니다.”와 같은 표현은 ‘과잉 공대’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693)에서는 높임의 자질이 다른 단어로부터 이동되어 본래는 높임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높임법을 실현하는 일을 간접 높임법이라고 하였다.

구본관 외 4인(2015:299)에서는 간접 높임에 대해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문법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를 들고 있다.

(21) 아버님은 키가 크시다.

(22) 선생님은 따님이 아주 예쁘시다.

구본관 외 4인(2015:299) [각주 61]에서는 또 아래 (23)을 간접 높임이 잘못 확장된 것으로 보고 “높임 대상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안정적 소유물, 가족 등이 주어가 아닌 예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아래 (24)와 같은 문장은 “간접 높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확장된 오용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23) 손님, 이 신발은 크세요.

(24)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높임 대상의 소유물을 어느 범위까지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주어 명사구에 소속된 사물’이나 ‘안정적 소유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아래의 (25), (26), (27)을 정상적인 간접 높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25) 선생님께서는 자동차가 있으십니다. (국립국어원 2005:217)

(26) 우리 아버지는 직장이 머셔. (유현경 외 9인 2018:509)

(27) 선생님, 옷에 흠이 묻으셨습니다. (홍종선 2017:997)

문법서들에서 (25), (26), (27)을 정상적인 간접 높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앞의 (23)과 (24)도 정문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발’이나 ‘커피’가 손님의 소유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은 언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발’이나 ‘커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직장’, ‘흠’도 높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위와는 달리 선어말어미 ‘-시-’의 이러한 분포 기능의 변화 양상을 상대 높임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곽숙영(2009:31-65)에서는 주체높임법의 ‘-시-’가 상대높임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고 이정복(2010:243-245)에서는 주체 높임의 ‘-시-’가 청자 또는 상황 주체 높임 기능으로 확대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시-’의 기능이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상황을 지배하는 인물인 청자를 높이기 위한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동훈(2011:58-59)에서는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의 시각에서 ‘-시-’는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는 환경에서 차츰 청자 경어의 사회적 화시소로 변모하게 된다고 하면서 형식 측면에서 결합 단위가 확대되고 의미 측면에서 청자 경어의 기능을 획득해 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래호(2012:165)에서는 언어 구조적인 관점에서 청자 높임의 등급 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해요체’나 ‘합쇼체’보다 더 높은 [+높임]의 문법 장치로 선택한 것이 ‘-시-’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목정수(2015:398-399)에서는 소위 과잉 존대의 현상들이 대부분 이상할 게 없는 한국어의 기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언어 사용 환경이나 매체 환경이 바뀔 때 따라 2인칭 주어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구조가 많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주어 존대 요소인 ‘-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결국 화자의 주관성 투사로 ‘-시-’는 높임의 대상 영역을 안긴절의 주어나 안은문장의 전체 주어로부터 청자어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문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재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정적 소유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했다기보다 애초부터 청자에 대한 극존칭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문화 인지적 시각에서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 높임의 ‘-시-’가 ‘간접 높임’으로 쓰인 것이라기보다 ‘상대 높임’으로 문법화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관건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쓴 것이다. 오늘날 ‘-시-’는 주체 높임의 주요 기능이 상대 높임으로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더 문법화되면서 종래의 통사적 제약 구조가 재구조화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높임법의 이런 문법화 과정은 상대 높임의 종결어미 '-습니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5세기의 '-습-'이 오늘날의 '-습-'으로 바뀌어 합쇼체의 경어법 표지가 되었다는 언어 사실로부터 주체 높임의 '-시-'도 상대 높임으로의 문법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시-'의 사용역 확대를 '과잉 공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체 높임의 '-시-'의 기능이 상대 높임으로 더 확장되고 있음을 언어 발전의 견지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5. 결말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한국어교육 시각에서 형태론 연구의 중심 과제인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분포와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품사 속성상 조사는 단어, 어미는 접사로 보기보다는 조사와 어미가 모두 문장에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 기능을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관계언으로 한데 묶었다.

조사와 어미는 형태상으로는 단어에 결합하지만 의미 기능상으로는 단어 이상의 단위에 결합한다는 한국어 특성으로부터 우선 1차적 기능으로 조사의 어휘화 기능과 어미의 문장화 기능을 부각시켰다. 다음, 문법적 관계 기능과 화용 의미 기능을 조사의 2차적 기능으로, 문법적 관계 기능을 어미의 2차적 기능으로 정리했다.

조사의 주관화와 어미의 문법화의 실현으로부터 조사와 어미의 기능 확장에 따른 위치 이동으로 하여 종래의 통사 제약이 파격되거나 재구조화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언어 발전의 시각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문법이라면 오늘날의 모어 화자의 한국어문법 기술(분석)로터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문법 해석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면서 본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 문헌

강보유(2011), 한국어 연구 시각: 언어표현의 객관성과 주관성, 국어국문학의 학문 경계와 융합, 제54회 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대회, 69-79쪽.

강보유(2012), 조사 표현의 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주관화, 양화 표현과 의미, 제31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5-68쪽.

강보유(2014), 인지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조선)어교육연구 제9호, 87-115쪽, 중국 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강보유(2015), 한국어 조사의 기능-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주관화, 광복 70년, 통일과 창조를 위한 한국어문학, 국어국문학회 2015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29-144쪽.

강보유(2016),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 중국조선어문 제5호, 5-13쪽.

강보유(2017), 한국어 구문해석 방법론 구축, 국어국문학 180, 45-78쪽, 국어국문학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 '격 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곽숙영(2009), 주체 높임 '-시-'의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한 문법적 의미 고찰,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31-65쪽.
- 구본관 외 4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수(1971/1986), 『국어문법론(증판)』, 일조각.
- 김재욱(2003), 『한국어 문법형태 연구』, 한국문화사.
- 김진호(2000), 『국어 특수조사의 통사·의미 연구 - '-은/-는'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역락.
- 남기심·고영근(2014), 『표준 국어문법론(제4판)』, 도서출판 박이정.
- 목정수(2009),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 목정수(2015), 『목정수 교수의 색다른 한국어 문법 강의』, 한국문화사.
- 박영순(1999), 조사의 인지의미론적 고찰, 국어의 격과 조사, 207-225쪽, 한국어학회, 월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4),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유현경 외 9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래호(2012), 선어말 어미 '-시-'의 청자 존대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학 연구 23호, 147-166쪽. 한국중원언어학회.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 이정복(2010),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217-246쪽.
- 임동훈(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 36, 39-63쪽.
-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윤갑(2009), 『한국어 문법 신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최현배(1937/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최호철(1999), 조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319-359쪽, 한국어학회, 월인.
- 홍종선(2017), 『국어문법사』, 아카넷.
- 홍종선 외 7인(2003),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아카넷.
- 沈家煊(2001),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 第33卷第4期, 268-275页.
- 沈家煊(2006), 『认知与汉语语法研究』, 商务印书馆.
- 石毓智(2004), 『汉语研究的类型学视野』, 江西教育出版社.
- 吴福祥 主编(2011), 『汉语主观性与主观化研究』, 商务印书馆.